세계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 및 도입을 통해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대만 공군(RoCAF)은 피스 피닉스 라이징(Peace Phoenix Rising) 사업을 통해 F-16A/B 다목적 전투기를 F-16V로 성능 개량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대만 의회 보고자료를 인용해 올 연말까지 22대의 F-16A/B 전투기가 F-16V로 성능 개량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대만 공군은 개량 작업에 들어간 22대를 포함, 2023년까지 총 140여 대의 F-16A/B 전투기를 개량할 예정이다. 최근 독일 연방군은 마르더 보병전투장갑차에 탑재된 열영상 표적획득체계가 노후됨에 따라 라인메탈 일렉트로닉스의 사피르 2.6 마르더 보병전투장갑차용 열영상 표적획득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2700만 유로가 투입되는 이번 교체 사업은 2023년 6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캐나다 해군은 북극 지역에서의 해군 능력 강화와 다양한 임무 수행을 위해 신형 해양경비정 HMCS 해리 디울프 연안초계함의 시운전을 진행했다. 캐나다 해군은 앞으로 1년여 동안 다양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시운전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대만 연내 F-16A/B 전투기 22대 중 19대 성능 개량 완료

2023년까지 140대 예정 장비 지원 수정계약 체결

대만 공군이 올 연말까지 F-16A/B 전투기 22대를 F-16V로 성능개량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공군은 이번 22대를 포함해 2023년까지 총 140여 대를 F-16V로 성능개량할 계획이다. 사진은 F-16V 전투기의 모습. 출처=janes.com

대만 중앙통신사(CNA)는 대만 의회 보고자료를 인용해, 피스 피닉스 라이징(Peace Phoenix Rising) 사업에 따라 올해 계획된 F-16A/B 전투기 22대 중 19대가 이미 성능개량을 마쳤으며 나머지 3대도 연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년에 시작된 피스 피닉스 라이징 사업으로 미국 록히드마틴과 대만 AIDC는 2023년까지 F-16A/B 전투기 약 140대를 F-16V로 성능 개량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F-16A/B 전투기 35대를 추가적으로 성능 개량하고 2023년에는 잔여 전투기를 성능 개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록히드마틴이 대만의 F-16 전투기 50대에 대한 다양한 장비 지원을 제공하는 5320만 달러 규모의 수정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이 수정계약을 통해 기존 항공기 하드웨어 및 장비 획득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작업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지역 및 대만에서 진행되고, 2023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싱가포르 에어쇼 기간 중 처음 공개된 F-16V 전투기는 노스롭 그루먼의 AN/APG-83 SABR 레이다, 레이시온의 신형 임무컴퓨터, 전술데이터링크(Link-16), 현대식 조종석 디스플레이, 강화된 전자전(EW) 체계, 지상충돌 회피체계 등을 구비하고 있다.

또 AGM-154 미사일과 AGM-88 고속 대레이더 미사일(HARM) 등 공대지 무기를 포함해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할 수 있다. 더불어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유도탄도 탑재할 수 있으며 이 미사일은 조종사의 헬멧시현장치(HMDS)를 이용해 목표를 조준할 수 있다.

독일 연방군, 보병전투장갑차용 열영상 표적획득체계 계약

노후 장치 '라인메탈' 체계로 교체

독일 연방군이 마르더 보병전투장갑차에 탑재된 열영상 표적획득체계가 노후됨에 따라 라인메탈 일렉트로닉스의 사피르 2.6 마르더 보병전투장갑차용 열영상 표적획득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마르더 보병전투장갑차의 모습. 출처=janes.com

독일 연방군이 최근 사피르 2.6 마르더 보병전투장갑차용 열영상 표적획득체계 획득을 위한 계약을 라인메탈 일렉트로닉스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군은 이번 계약을 통해 육군 마르더 보병전투장갑차에 장착된 노후된 열영상 표적획득장치를 라인메탈 일렉트로닉스의 체계로 교체할 계획이다.

독일연방의회 예산위원회가 승인한 이번 사업의 규모는 2700만 유로다. 계약에는 체계 외에도 부속장비와 예비부품들도 포함됐다. 라인메탈 일렉트로닉스는 2023년 6월까지 교체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피르 2.6 마르더 보병전투장갑차용 열영상 표적획득체계는 페넥 장갑정찰차량의 바펀스테이션 200 원격무장장치에 설치된 조준경 타입이다. 독일 연방군은 탐지기 및 디스플레이가 기존에 비해 더욱 선명한 해상도를 갖춰 마르더 장갑차의 관측거리 및 주야간 정찰능력을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라인메탈사가 제작한 신형 조종수용 야간투시장치와 연동돼 작전 중 주야간 모두 독일 부대에 전술적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신형 해양경비정 HMCS 해리 디울프 연안초계함 시운전

내년 봄 승조원 첫 해상보급 시험

캐나다 해군은 최근 신형 해양경비정 HMCS 해리 디울프 연안초계함의 시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HMCS 해리 디울프 연안초계함의 모습. 출처=navyrecognition.com

캐나다 해군은 최근 발표를 통해 신형 해양경비정 HMCS 해리 디울프 연안초계함의 시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해군은 "이번 시운전은 함정에 대한 점진적인 시험을 하는 일련의 정상적인 과정으로 승조원들이 새로운 함정의 운용경험을 습득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12개월의 시운전 기간 해리 디울프 연안초계함은 해군 작전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운 기상과 따뜻한 기상에서 모두 시운전해 승조원들의 작전능력도 지속적으로 숙달할 예정"이라며 "이때 사이클론 헬기와 퓨마 무인항공기도 함께 운용하면서 주 함포인 25㎜ 자동포를 시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캐나다 해군은 "내년 봄에는 승조원이 첫 번째 해상보급 시험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 번에 해상에서 수개월 동안 지속적인 임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 디울프 연안초계함은 2011년 발주 및 2016년 기공식, 2018년 진수식을 거쳐 2020년 7월 31일 캐나다 해군에 인도됐다. 캐나다 해군은 북극 지역 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 함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함정은 북극지역 내 캐나다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비 및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선체 두께가 두꺼워 120㎝ 두께의 해상 얼음을 뚫고 항해할 수 있으며, 헬기·소형 주정·화물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원거리 지역에서 운용할 때 특히 유용하다.

북극에서의 임무 외에도 연안 수역 및 국제 수역에서도 운용이 가능해 캐나다 해군을 여러 방면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캐나다 해군은 필요할 경우 이 함정을 국내외에서 밀수, 해적 퇴치작전에 투입해 국제 안보 및 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인도적 긴급 대응 및 재난구조 작전에도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제공=글로벌디펜스뉴스